

# 오암지구 토목공사 특혜 의혹

###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입찰공고시 일부업체 위해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입찰공고한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발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해 입찰 참가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적용공사실적이 과거 농어촌공사 발주 관련 공사와 비교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이하 전주지사)는 지난 8일 기초금액 67억 9,700만원 규모의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전주지사는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업체 가운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농업토목 1건 준공실적 금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으며, 공동도급 또한 불허했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총 400여개 도내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업체 가운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다가 공동도급까지 불허해 중소기업업체들은 이번 입찰을 그저 '그립의 떡'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도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예규까지 개선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주지사의 발주는 이를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며 "전주지사가 이번 공사를 발주할때 공동도급도 불허하고, 공사실적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혹시 특정업체를 염두해 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심지어 전주지사의 이번 발주는 앞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다른 공사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공사보다 발주금액이 큰 공사마저도 실적제한이 20억원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 무전장지사가 지난 2011년 초에 발주한 기초금액 100억 1,500만원 규모의 '용립지구 농업용저수지특수기타사업 토목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10년 이내 준공된 1개회사의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규정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의 농업용저수지특수기기 사업에서도 여러차례 실적제한을 '2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은 도내에서 나오는 농업토목공사는 실적제한을 잘 하지 않았다"며 "또한 5년 전에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에서 실적제한한 사업의 거의 2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주지사가 실적제한을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전주지사는 보다 많은 도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다시 공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공사 현장이 두 곳이고 공사내용도 여러개라 관리측면에서 공동도급을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실적 30억원 이상은 농어촌공사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67억 9,700만원)과 관급자재 19억 9,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의 1/3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해서 항간에 일고 있는 특정업체 염두 발주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인천대와 인력양성 등 교류 협약 농촌진흥청은 10일 인천대학교와 전문 인력양성과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학·연협동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스타항공, 부산-코타카나발루 신규 취항

이스타항공이 부산출발 신규 노선인 부산-김포, 부산-코타카나발루 노선을 오픈한다.

이번 신규취항으로 이스타항공의 부산 출발 노선은 기존 부산-제주, 오사카, 방콕에 이어 5개 노선으로 확장된다.

특히 부산-김포 노선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기간 임시편 운항 당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았던 노선으로 부산-서울의 더욱 편리한 하늘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타카나발루는 기존 인천출발노선에 부산출발 노선이 추가되면서 부산에서의 떠남 여행객의 증대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부산출발 신규노선 런칭을 기념해 10일 오후 2

시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신규노선 오픈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가항공권의 탑승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25일 까지이며 부산-코타카나발루 노선은 편도 총액운임 62,000원~ 부산-김포 노선은 편도 총액운임 19,900원부터 제공된다.

한편 이번 신규스케줄 오픈과 더불어 지난해 10월 29일에 첫 운항한 오기나와 노선의 1주년 맞이 이스타항공의 5개 일본노선(인천-오기나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부산-오사카) 특가도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http://www.estarjet.com)),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소음과 진동 피해 배상액 내년부터 50% 인상

### 건설업계, "자구노력으로 배상액 해마다 줄었는데 기준 다시 높이나" 허탈 여론

내년부터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피해 배상액이 50% 오른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가뜰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배상액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배상액을 내년부터 50%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소음진동 피해배상 기준 조정은 지난 2011년 1월에 30% 인상 이후 6년 여이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종 환경분쟁의 배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마무리했다. 그 첫 단추가 소음진동 분야다. 지난 1991년 7월 위원회 설립 후 작년까지 조정·처리한 총 3,495건 중 85%(2,983건)가 소음진동 피해였다.

남광희 위원장은 "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에 그쳤다"며 "분쟁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배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배상액이 50% 오를 경우 소음진동 사건별로 약 660만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11~2015년)간 연평균 환경피해 배상액 2200만원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도로, 철도, 주택 등 소음진동 시설별로 배상액 인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건설업계는 배상액 인상에 부정적이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합리적인 배상액 조정은 필요하지만 50%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0~2015년 물가상승률은 10%도 안되는데 한꺼번에 배상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배상금을 너무 높이면 악성 민원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배상기준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의 환경분쟁 배상액을 5년 단위로 쪼개보면 2001~2005년 평균 4,300만원에서 2006~2010년에는 3,300만원, 2011~2015년 2,200만원으로 꾸준한 감소세다. 2011년 배상기준을 30%나 올린 것을 감안하면 되려 평균 배상액이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자구노력 덕분에 배상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배상기준을 또다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액이 줄었다고 배상기준을 다시 높이면 건설사들의 그동안 자구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위원회는 9일 건설업계와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환경피해 배상기준안을 이달까지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농업과학도서관 열람실 주말에도 이용

### 농촌진흥청 12일부터

농촌진흥청은 12일부터 농업과학도서관 열람실을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전북혁신도시 지역주민에게 독서, 학습 공간을 제공해 문화복지 기회를 늘리면서 농촌진흥청과 지역이 상생 협업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농학도서관으로 지정된 농업과학도서관은 28만권의 농업관련 전문도서는 물론 다수의 교양서적을 갖췄으며, 120석의 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 자료실, 세미나실, 오디오라움 등이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이다.

평일에는 지역주민에게 도서 대

출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했던 열람실은 이용자 수요가 높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해 개방한다.

아울러 열람실 개방에 맞춰 복도에 소파 추가, 잡지류 비치, 컴퓨터 이용 공간을 마련했으며, 도서관 주변의 녹지공간과 넓은 주차장 등도 확보하고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삼근심 지식정보담당관 "지역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독서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자료실, 세미나실 등도 추가 개방해 지식 소통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 특성화고 FTA대응 전문인력 육성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FTA스쿨을 개최했다.

FTA스쿨은 경진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교육으로 FTA 체결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원자재 수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무역진로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좌는 FTA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작년에 신설된 전문자격증인 '원산지실무사'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원산지실무사는 원산지정보 수집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수요생들은 오는 2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이 고교생들의 무역진로의 의사결정과 지역 무역업체의 인력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진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진원 홍용용 원장은 "FTA스쿨이 지역 특성화고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도내 기업에서 무역실무 전문가로 활약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 동암고에서 특강 실시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지난 9일 2016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10월 우수학교로 선정된 동암고등학교에서 'POSTSHIP'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병수 청장은 'POSTSHIP'을 POST의 머리글자를 인용해 PASSION, OPENNESS, SCIENCE, TRY로 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과 꿈에 대한 열정, 열린마음, 과학,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인 드론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과 드론비행을 시연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